올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본격

초등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대상… 싱가포르 · 베트남 등 5개국서 해외 문화체험

도교육청, 국가별로 100명씩 총 500명 학생 선발… 28일 해외연수 사업 설명회

올해 하반기 전북지역 학생 500명이 해외 문화체험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2023년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해외 문화체험 추진방향과 학생 선발과 선정기준, 사전·사후교육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2023년 해외 문화체험 추진계획'을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문화체험은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해외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사회·역사·자연환경 등을 직접 보고 느껴 소통역량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진로와 학습 동기를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연수 국가는 일본·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이다. 국가별로 100명씩 총 50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별로는 전주 80명을 비롯해 군산·익산 45명, 그 밖의 시군 30명씩이다.

기후 특성을 반영해 여름철에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겨울철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견학과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학교를 통해 학교장 추천서, 자기소개 및 해외 문화체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해 해외연수 경험, 학교폭력 처분 여부, 출결상황 등 자격기준(50%)와 자기소개 및 해외 문화체험 계획서, 면접 등의 준비도(50%) 기준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을 우대 선발하도록 했다.

또 방문 국가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충분히 거쳐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인 효과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해외연수가 선발의 공정성과 학생 안전, 교육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및 여행업체에 해외연수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통학로 선행을 베푼 50대 부부에게 교통안전 감사패가 수여됐다.

건물 뚫어 '안전 통학로' 만들다

서거석 교육감, 박주현 · 김지연 부부에 교통안전 유공자 감사장 · 감사패 전달

서거석 교육감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로 선행을 베푼 50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인후초등학교 인근의 한 상가를 방문해 박주현(55)·김지연(50) 부부에게 교통안전 유공자 감사장과 감사패를 줬다.

이는 인후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자신들 소유의 상가 건물에 통학로를 만들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실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상가 건물은 내부에 일자형 통로가 뚫려 있어 상가를 찾는 손님은 물론이고 누구나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

이에 박주현·김지연 부부는 2012년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건물 가운데를 뚫어 안전 통학로를 만들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쳤다.

서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건물 내에 통학로를 만들고 관리까지 해준 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3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6년 연속 수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대학의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 수립부터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 설립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36개의 실험실 창업기업과 다수의 학생 창업유망팀을 배출했으며, 매년 주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올해 17개의 실험실을 1차 선발해 예비 실험실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지원하며, 전담기관의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실험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후속 연구개발비와 다양한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학내 창업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실험실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포스코와 ESG 시대 지역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시민' 정규과목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대입전형 적극 반영"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 제2차 정기회의서… 시기는 각 대학별 상황 등에 맞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지난 21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반영 방안 △국립대학 시설사업 인허가 특례 도입△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2023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 행사 개최 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시기와 관련해선 각 대학별 상황과 입학 정책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밖에도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비율 조정 방안과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제전을 6월 1일~2일 충남대에서 개최하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포스코와 ESG(친환경 기업 활동,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시대 지역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시민' 정규과목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인권분야 전문성 · 실무역량 갖춰'

도교육청, 허창영 인권담당 사무관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공개모집을 통해 허창영 인권담당 사무관을 선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실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허창영 사무관을 24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인권담당 사무관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관한 업무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 및 학교 구성원의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허창영 신임 사무관은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인권법 전공)을 마쳤다. 또 인권연대 간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권조사구제담당 공무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권전문가의 임용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스타정원 지역민 사랑 '듬뿍'

전주대학교 스타정원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타정원은 대학 내 유휴지를 개간해 조성된 그린캠퍼스 쉼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ESG 경영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3년여 동안 꽃잔디, 진달래꽃, 유채꽃, 철쭉 등을 심고, 조형물과 의자, 테이블 등을 배치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전주대학교 주차장은 상시 개방돼 있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상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꽃을 심어 현재는 유채꽃과 철쭉 명소로 유명해져 많은 지역주민이 방문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꽃을 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가정의 달 5월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쉼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마련

도교육청, 중3 부장 · 고입담당 장학사 대상 설명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마련, 지난 21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중3 부장 및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고입 기본계획과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침과 지원 자격을 비롯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입학전형 공통 유의사항 △전기고·후기고·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타 시도 전입자 입학전 전입 관리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형의 유의사항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그 외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신입생 선발은 전기모집(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전문계열·예체계열))과 후기모집(일반고(일반계열), 특목고(외국어고), 자율고(자사고))로 나눠 진행한다.

전기 모집은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는 후기 모집고를 지원할 수 있다.

특목고인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국어고,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북과학고·전북외국어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 상산고·익산고는 학교별로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LINC 스타 컨소시엄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0일 LINC STAR 컨소시엄 성과공유·확산 포럼을 갖고, 1차년도 사업성과 공유 및 대학 간 기업협업센터(ICC) 공동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INC STAR 컨소시엄은 연성대학교를 회장교로 선출해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각 권역별 전문대학 6개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연성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가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1차년도 LINC 3.0 핵심성과지표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협업센터 우수성과 창출 △주문식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장은성 기자

전북미래학교 구성원 정책 이해도 향상

도교육청, 교원 네트워크 워크숍… 내일 2차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3학년도 전북미래학교 교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2023년 전북미래학교 102교의 교(원)장, 교(원)감을 대상으로 전북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안내하고, 학교 관리자들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은 전북미래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가 특강(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지역·학교별 특성 반영한 분임토의 △학생중심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별 사례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수업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북미래학교 구성원의 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북미래학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미래학교 담당교사를 위한 2차 워크숍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